

전남 관광지 '국산김치 인증업체' 확산

안전한 음식관광 새모델 제시...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 사용 영광 법성포굴비거리, 무안 빨낙지거리 등 25곳 321개 음식점 참여

중국산 김치에 밥상을 내준 국산김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주요 관광지 대표 음식점을 중심으로 국산김치만을 사용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가 국산김치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첫 시행한 '국산김치 인증업체 사용표시제'가 지역 대표 음식 관광지의 음식점으로 확산되면서 안전한 음식관광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에서 공급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전남도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공동 추진한다.

17일 현재까지 전남지역 유명 먹거리 골목 25곳 321개 음식점이 표시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267개 음식점은 인증을 마쳤다. 나머지 54개 음식점은 신청서를 제출, 모두 인증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영광 법성포굴비거리 34개 ▲장흥 토요시장 한우삼합 25개 ▲순천 옷장 국밥거리 20개 ▲무안 빨낙지거리 19개 ▲함평을장터 생고기비빔밥 18개 ▲신안 섬 빨낙지거리 9개 ▲해남 닭요리 8개 ▲완도 전복명가거리 7개 등이다. 이를 포함해 전남지역 국산김치 인증업체 사용표시제 지정 신청 실적은 총 5396개소다. 전남 인증점

표인 6700개소의 81%, 전국 지정(1만2567개소)의 43%에 달한다.

이밖에 전남도는 먹거리 관광지 등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의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우수식자재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이 좋은 식자재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관광객에게 안심 밥상을 제공하도록 단체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국산김치 사용업소로 지정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추, 천일염, 마늘을 비롯해 완성김치 등 식재료 구입비 25만원도 지원한다.

강화촌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맛의 고장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시도록 김치 등 안심 밥상 먹거리 골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추석 앞두고 원산지표시 점검

17일 오전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말바우 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주택 청년에 월 20만원 월세 지원한다

전남도, 22일부터 시·군서 접수...최대 12개월간 특별 지원

전남도는 22일부터 22개 모든 시·군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11월경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다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

능하며,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이고,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70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이며, 지원을 원하면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경기,수도권 10억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광주·전남 신규확진 1만명 또 넘었다

코로나19 전국 4개월만에 최다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고, 전국적으로도 4개월만에 최다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광주 5521명, 전남 7509명 등 1만3030명이 발생했다.

일주일 전인 10일(1만1022명)과 비교하면 2008명이나 늘었다. 사망자는 전남에서만 3명이 발생했고, 위중증 환자 수는 광주 8명, 전남 2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 여수, 순천에서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전파가 이어졌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와 순천에서 네자릿수, 목포 등 15개 지역에서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18만803명 늘어 누적 2168만2816명을 기록했다. 지난 4월 13일(19만 5387명) 이후 4개월여(126일·18주) 만에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달 중·하순 하루 12만~33만2000명에서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한 8개 연구팀의 전망치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다만 이날 수치가 유행 정점 도달을 의미하는지, 일시적 현상인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남 발표치(8만4128명)와 비교하면 2.1배나 급증한 수치다. 1주일 전인 지난 10일(15만1748명)의 1.2배, 2주일 전인 지난 3일(11만9884명)과 비교하면 1.5배로 늘었다.

다만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13~15일)가 겹치면서 감소했던 진단 검사 수가 평일인 전남 급증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7193명→12만8679명→12만4569명→11만9580명→6만2077명→8만4128명→18만803명으로, 일평균 11만9576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17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앞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가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적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후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예약 후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곳)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연합뉴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오늘부터 시행...여기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했다.

7개 직종은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이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 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적용을 내년 8월 18일까지 1년 유예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